

획일적 '대학구조조정' 광주·전남 대학 불이익 우려

교육부 이달내 확정 발표 앞두고 긴장감

경제구조 취약 불구 취업률 등 기준엔 불리

교육부가 계획대로 이달 내에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구조개혁 방안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지방의 대학들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대학만 불이익을 받지 않을 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차이나, 지방과 지방의 격차를 무시한 채 취업률을 구조개혁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방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대학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데 공감하고, 이달 중 교육부가 상세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희정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대학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이 과다해진 문제에 따른 혼란을 먼저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에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며 "고교 졸업생 수가 계속 줄어들어 오는 2023년이면 초·중·고교 정원이 16만명에 달한다는 대학 110개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학 특성에 맞는 대학구조개혁 기준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립대와 사립대,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대학 특성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에 맞는 대학구조개혁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새 대학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대학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벌여왔다. 이 방안은 내년부터 전체 대학을 절대평가를

통해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자율적·강제적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이 비슷하게 유지된다.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걸러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서는 정성지표 반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수북이 쌓인 담양 유과 13일 오후 담양군 창평면 의항리 안복자 한과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유과를 만들고 있다. 담양 한과는 미국, 중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영하의 날씨, 동물원에 정전사고가 났는데...

광주 우치동물원측 16시간 원인 못찾고 비상발전

복구 지연엔 파충류·열대 조류 등 동사 피해 걱정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던 13일 광주우치동물원에서 갑작스런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우치동물원 측은 대규모 정전 직후 동물 우리에 설치된 난방시설 작동이 순간 멈췄으나 곧바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면서 전기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전 사고가 일어난 지 16시간 넘게 원인을 찾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전기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동물 우리 난방에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이날 새벽 3시에 광주시 북구 생룡동 우치동물원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파충류 유리·열대 조류관·어린이 동물 우리 등에 공급되는 난방이 일시 중단됐다. 다행히 전기공급이 끊긴 지 5분 만에 비상발전기가 자동 가동되면서 우려했던 동물들의 동사 피해는 없었다.

하루 평균 100kw 이하의 전력을 공급받는 우치동물원에는 180kw급 비상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5분 이상 전기공급이 중단되면 비상발전기는 자동으로 가동된다. 하지만, 이날 오후 7시까지 전기 복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치동물원은 이날 한전 직원과 전기 전문수리업체 직원 등을 불러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다. 하지만, 오래된 전기 배선에 문제가 있다는 추정만 할 뿐 명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우치동물원 측은 안전 복구와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서 복구 작업이 늦어질 경우 자칫 동물들의 동사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편, 1992년 개원한 면적 12만 1302㎡의 우치동물원은 137종·632마리의 각종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호남지역 대표적인 동물원이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광주·전남 경찰청 경무관 4명으로

경찰청 인사...차장직제 폐지 1·2부장 신설따라

본청 대변인 무안출신 박경민

광주·전남지방경찰청 경무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청은 13일 본청 대변인에 무안 출신 박경민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을 내정하는 등 경무관 48명의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영단 18면)

특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경무관 계급인 차장 직제가 없어지고 같은 계급의 1·2 부장이 신설됐다. 광주지방청 1부장은 영암 출신 민

갑룡(49·경대 4기) 경찰청 기획조정 담당관이, 2부장은 광주 출신인 신현택(47·행시 34기) 경찰청 강력범죄 수사과장이 각각 승진해 부임한다. 1 부장은 경무·정보화장비·정보·보안 등 치안 지원부서 업무를 총괄하고 2 부장은 수사·경비교통·생활 안전·여성청소년 등 민생치안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전남지방청에는 1부장이 서울 출신 김규현(51·경대 2기) 본청 홍보담당관이, 2부장에 충남 서천 출신인 이철구(49·경대 4기) 서울청 수사과장

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정기 인사가 매년 한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예초 율 하반기부터 운영기로 했던 전남청·경남청에 대한 1·2 부장제를 이번 인사에 도입했다.

양성진 전남청 정보과장은 전북 전주완산서장으로 배치됐고 광주 출신 배용주(51) 서울청 형사과장은 전북 청 차량으로 부임하게 된다. 전남청 강인철 차장은 서울청 보안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전남청은 갑작스런 1·2 부장제 운영 방침에 맞춰 차장실을 1·2 부장제로 바꾸는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3주 가량 걸리는 공사를 감안하면 당분간 '자리' 없는 '부장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 해질 17시 42분 / 달출몰 16시 16분 / 달정 06시 49분

맹 추위 강습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감기 위험 높겠다.

광주	맑음	-7/3℃
목포	맑음	-6/2℃
여수	맑음	-4/4℃
나주	맑음	-10/3℃
완도	맑음	-4/4℃
구례	맑음	-8/3℃
강진	맑음	-7/3℃
해남	맑음	-7/3℃
장흥	맑음	-7/4℃
순천	맑음	-5/5℃
영광	맑음	-9/2℃
진도	맑음	-5/3℃
전주	맑음	-9/2℃
군산	맑음	-8/2℃
남원	맑음	-11/2℃
혁신도	맑음	0/2℃

〈오전〉 바다 풍향 파고 김기시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m 북~북동 0.5~1.0m 높음 낮음 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m 북~북동 1.0~2.0m 높음 낮음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m 목포 00:38 06:1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북서~북 13:32 18:5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여수 08:25 01:50
북~북동 1.0~2.0m 남원 20:27 14:32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날씨						
최저/최고	-7/4	-4/6	-4/6	-3/4	-4/6	-2/5

지리산 등 국립공원 대피소 여름성수기 추첨 배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지리산, 설악산 등 주요 국립공원 대피소를 여름 성수기(7월 중순~8월 중순)에 추첨제로 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리산 등 여름 성수기에도 인 터넷을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대피소를 배정했으나, 예약 과정에서 각종 불편 사항이 접수돼 추첨제를 도입하게 됐다. 공단은 설명했다. 여름 성수기가 아닌 기간에는 그대로 선착순 신청 방식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재활용·폐기물 민간위탁사업' 감사원, 실질 감사 착수

감사원은 광주시 서구의 재활용·미조치와 목인, 최저임금 위반 등 구청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한 서류 검토를 마무리 했으며, 실질 감사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명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서구청 측은 "실질감사는 서류 검토 후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류검토 후 서구청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 아니냐는 등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황칠나라
DEN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식당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매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물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과 영양 사과 농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愛)비법 (주)
전남 장흥군 장흥읍 백산리 69-3